

건강한 교회성장의 노력이 한눈에 보이는 목회성장전문지

Church Growth

교회성장

12
2019

특집 | Perspective

2019 한눈에 보기

- 교계 10대 뉴스
- 미셔널 처치
- 특집 다시 읽기
- 2020년 전망



오피니언 리더 | 박노훈 목사(신촌성결교회)
'성역(聖役)을 세우는 생활신앙'

특별부록

01. 믿음의가
02. 평신도 사역자 훈련 프로그램

12
2019

목회자의 설교준비를 돕는

말씀을



오늘이 모든 시작이 되기를
더욱 사랑하기를
그의 모든 자녀를
영광에 인도하기를
이름을 찬양
모든 그 영광에
찬양을
찬양을
찬양을
찬양을

2019년 12월
12월 12일

교회성장연구원

COLUMN 017
019
020

OPINION LEADER 022



PERSPECTIVE

2019 한눈에 보기

- 032 Part 1. 2019 교계 10대 뉴스
- 038 Part 2. 특집 다시 읽기
- 044 Part 3. 선교적 교회 운동, 1년의 기록
- 052 Part 4. 모두가 깃수가 되는 시대 최현식 목사(아시아미래연구소 부소장)

060 <누크의 목상드로잉> 공유택 작가(누크하우스)

MINISTRY 062 행복한 목회현장 속으로 | 장덕한 목사(디자인 3.0 Church)
'지금은 개척의 때입니다'

070 글로벌 리포트 | 홍성필 선교사(일본)
'열도의 중심, 부흥의 중심'

080 복회 매뉴얼 | 강장식 목사(모두가행복한교회)
'예술과 치유가 공존하는 작은 도서관 목회 II'

090 처치닥터 | 오형동 목사(원주순복음중앙교회)
'목회자 모임에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당회원 간 분쟁을 조절하는 방법'
'목회자의 번 아웃을 예방하는 방법'





열도의 중심, 부흥의 중심

글 홍성필 선교사(일본)

군마(群馬)에서 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동경(東京)도 오사카(大阪)도 아니고 군마라니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동경에서 살았던 저에게도 군마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물론 지리적으로 보면 동경과 같은 관동지방이요, 신칸센을 타면 1시간밖에 안 걸리는 곳이지만, 저에게 군마는 무관심한 영역이었습니다.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게 된 부친을 따라 일본에 온 것은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1976년. 일본에 사는 12년 동안 저희 가족이 항상 하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는 언젠가 돌아갈 것이다.” 아버지가 퇴직하거나 한국으로 발령이 나면 언제든지 한국으로 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학이라도 한국에서 졸업해야 한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대학생 때부터는 홀로 서울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신학을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오랫동안 믿음생활을 해오셨기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몇 년 후, 신학교 과정을 마치신 부친이 대사관

에서 퇴직하고 전도사 사역을 시작한다고 하셨을 때는 내심 그렇게 서두르실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도 부모님과 저에게 ‘각자의 길’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걱정하지 않았습니
다. 다만, 생활비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자
구책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일본어
번역을 통하여 대학에 다니면서도 안정적
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흥미로운 소식을 접한 것은 대
학 졸업을 앞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동경
에 이어 오사카에서 전도사로 사역하셨던
부친이 1994년 군마현에서 다카사키중앙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 후 10여 년 동
안 아버지와 저는 각자의 길을 살았습니
다. 저는 서울에서 일본어학원에서 강의하
며 교재도 출판했습니다. 한국에서 점점
자리를 잡았고, 다카사키중앙교회도 우여

곡절 끝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 후 10
여 년 동안 아버지와 저는 그야말로 각자
의 길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상황에서 세 번째 소식이 들려왔
습니다. 군마현 이카호에 있는 한 미술관
이 경매로 나왔는데 이를 인수하게 될지
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유럽 바
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을 5분의 3 규
모로 재현하였으며, 실제 성전 내부와 똑
같이 미켈란젤로의 대표작 <최후의 심판>
등을 비롯한 아름다운 벽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가
지고 어떻게 일을 추진해 나아가려 하시
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만, 여전히
‘알아서 잘하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마
침내 그 미술관을 인수하기로 결정되었습
니다. 부모님은 미술관을 개조하여 교회



로 쓴다고 하셨지만, 저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교회에서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몇 년 후, 일본에서 네 번째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70세가 넘었습니다. 후임자를 찾아보려 했으나, 신앙은 물론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잘 알고 일본 선교에 사명감을 가진 인물을 찾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더구나 출석 성도수가 열 명도 채 되지 않아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문득 저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가족 중에서 가장 일찍 복음을 받아들여 순복음동경교회에 다녔고, 한국에서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일본에서 살았던 제게 언어나 문화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제 결단뿐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말로 표현한다면 운명의 장난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수십 년 전부터 이때에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 예비하신 것이 아닐까, 이때를 위해 나를 어렸을 때부터 12년간 일본에 살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습니다.

선교생활 우여곡절

선교의 불모지라는 일본에서도 지방의 작은 도시, 시내 중심지로부터 떨어진 교회, 불리한 조건뿐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무엇보다 고정적인 후원을 해주시는 단체가 없는 상황에서 선교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동경이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라면 처음에 한인 대상으로 시작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곳에는 한국인도 별로 없습니다.

초기에는 제 경험을 살려 인연이 닿은 곳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면서 선교활동을 병행했습니다. 물론 선교에 온전히 집중하기는 힘들었으나, 이 방법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 육의 생각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해소될 것처럼 보였으나 이로 인하여 저의 종교비자 갱신에 어려움이 생겼고, 제 아내의 가족비자 발급이 반려되어 4개월 간 이산가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비자가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었기에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며 하나님은 하나

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러 왔다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에 의지하여 선교비를 해결하려고 하면서도, 이를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합리화한 것입니다. 정작 주님의 일은 소홀히 하게 되고 어느새 돈벌이를 위해 일본에 온 것이나 다름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교회와 가정을 위한다고 세상일을 하였으나, 제가 한 일로 인하여 도리어 교회와 가정이 위태롭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제 힘과 능력으로 선교하겠다는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여기저기서 후원의 손길이 들어왔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 멀리 미국에서, 하와이에서, 싱가포르에서, 한국과 일본에서 후원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메일로 격려해 주시는 분도 늘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구나’ 하는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이제 비자 문제 역시 원만히 해결되어 이번에는 저와 아내 모두가 무사히 중장기 비자를 받아 좀 더 안정적으로, 보다 본격적으로 선교활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사역 이야기

1. 찾아가는 전도

매주 주일 오전 11시부터 드려지는 예배는 공식적으로 담임을 맡고 있는 부친을 대신하여 제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한국 성도님뿐이어서 우리말로만 예배를 드렸으나 최근 일본인 성도님 한 분이 오셔서 최근에는 한국어, 일본어로 동시에 예배를 진행합니다.

주중에는 전도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군마현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도와 현지인 전도입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일본 현지인 선교를 위해 일본에 왔으나 이곳에 살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혹은 예수님을 떠난 한국 성도 역시 일본 현지인

니다.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찾아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를 반겨주시든 말든 규칙적으로 방문합니다. 그러다 보면 본체만체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해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남의 나라, 한국인이 별로 없는 지방 소도시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 없다고는 합니다만, 오랜 타향살이에 남모를 사연이 더 많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진정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 역시 처음에 전도를 다닐 때 저를 반기지 않는 분들을 보면 분하기도 하고 다음에 그 집에 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며 여러 가지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은 위로가 되

는 성경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이 일을 진정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일본 현지인 대상 전도는 저희 교회 인근 또는 마에바시 시나 다카사키 시 등의 주택가를 돌며 전도지를 배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집마다 초인종을 누르고 직접 전달했지만 외관원 등으로 오해해 처음부터 문을 열어주지도 않거나 기독교 전도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지금은 우체통에 넣는 방식으로 대체했습니다.

2. 영상을 활용한 선교

한 번 전도를 나갈 때마다 2, 300장 정도를 돌리지만 읽지 않고 버려지는 전도지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방식이 없을까 고민한 끝에 한국어와 일본어로 설교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인터넷과 미디어기술의 발전이



선교 역사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쇄술의 발전에 힘입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목회 사역은 방송이라는 새로운 미디어에 의해 폭발력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많은 교회가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에 화려한 전문 방송 장비는 없으나,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파하는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일했기에 사람 앞에 서는 것에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랫동안 인터넷 강의도 했었기에 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것에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과정이 지금 이 순간이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철저히 준비시키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다만 어려운 것은 일본어 설교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일본에서 생활했기에 생활 일본어는 문제가 없었지만 설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일본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기에 말씀을 일본어로 전달하는 데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어 설교 영상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망설이고만 있던 중에 뜻밖의 메일이 영국에서

날아왔습니다.

영국의 한 지방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님께서 보내신 메일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저에게 일본인 친구에게도 신앙을 전하고 싶으니 일본어 설교 영상을 올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놀라고 부끄러웠습니다. 완벽한 일본어 설교에 자신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부족하더라도 일본어로 말씀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서 힘을 얻어 저는 한국어, 일본어 2개 국어로 말씀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블로그, 팟캐스트, 팟빵 등 가능한 여러 곳에 영상을 업로드 하였으며, 주일설교 실황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교회 소식을 나누고, 한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세계 각지에 있는 한국계, 일본계 교회에 저희 이카호중앙교회의 선교소식과 동영상 링크를 이메일을 통해 매주 발송하고 있습니다.

3. 기린성경필사

올해부터는 새롭게 말씀 중심의 믿음을 위해 성경필사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서 시작하고

[illegible]

실 수 있습니다. 기린성경필사 사이트 (<http://biblewriting.ikahochurch.com>)에서 제공되는 성경필사 원고지 파일을 다운 받아 필사한 후 사진을 찍어서 메일 (ikahochurch@gmail.com)을 보내주시면 때마다 필사 진행상황 보고서를 PDF 파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기린성경필사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성경을 깊게 알게 되고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성경
소설 〈요셉의 재회〉를 한국어와 일본어

교회성장 12월호 | 77

의 2개 국어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http://joseph.ikahochurch.com>) 성경소설은 한국에서는 많이 낯설지만 미국에서는 인기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성경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성경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인은 물론이고 비기독교인 대상으로도 성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설을 집필하게 된 계기는 창세기를 읽던 중 요셉의 행동에 몇 가지 의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 형제들과 재회할 당시 보이는 일련의 행동들에 대한 궁극적 목적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주된 해석은, 요셉이 형제들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하여, 또는 이복형제들이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자기처럼 내버리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만 저로서는 이와 같은 견해가 대단히 부자연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성경 내용을 토대로 하여 요셉이라는 인물을 재구성하고 성경의 본래 내용에 충실하되 보다 입체적으로 해석하려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의 진정한 용서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 가능하다는 점과 위대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인터넷으로 연재를 하고 있으며, 기회가 된다면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출판하여 성경과 기독교에 대한 양국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교회 역시 최근 조금씩 활기를 띠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수는 적지만 한 분 한 분이 저회에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작년부터 출석하시는 일본인 자매님은 신앙은 없지만 한국에 대한 호감으로 교회에 나오셨는데 갑작스레 모친상을 당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모친상 이후 우울증으로 직장도 나가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했는데 다시 교회에 나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생활에도 활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기린성경필사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성도가 생겨 식사시간에는 한국어,

일본어를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야기꽃이 피고 웃음이 넘칩니다. 비록 규모는 작아도 한국인과 일본인이 모두 모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사이 좋게 지내는 따뜻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개척하는 일은 고되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하루하루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작고 미약하며 가난한 시골 교회이긴 하나, 주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하나도 땅에 묻지 않고 온전히 감당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바랍니다. 🙏



※ 한국 국민은행 079-21-0736-251 홍성필
일본 群馬銀行(군마은행) 店番号 190(渋川支店)
□座番号1992256 ホンソンビル
홈페이지&E-mail <http://www.ikahochurch.com>,
ikahochurch@gmail.com

끝으로

아직도 한국인에게는 낯선 군마현. 제가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군마현. 그러나 이곳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서 군마는 제게 주님께서 부흥을 약속하신 땅, 일본 부흥과 세계 부흥의 중심지가 될 약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일본 지도를 펼쳐보면 군마현은 일본의 정 중앙에 있으며, 저희 이카호중앙교회가 있는 시부카와시는 그 군마현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가운데에서 복음의 불모지